

밤하늘의 별, 신화가 되다... 별자리로 읽는 인간의 상상력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별자리 신화 백과

아네트 기제케 지음, 이영아 옮김, 짐 티어너 그림

어린 시절 밤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 경이로웠다. 저 별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름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 별들은 어디로 사라질까 등등의 의문을 가졌다.

오늘날 도심의 밤하늘에서는 거의 별을 볼 수가 없다. 간혹 한두 개 별이 보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에 봤던 별만큼 또렷하지 않다.

어른들은 별뿔별이 떨어지면 누군가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했다. 삶과 죽음을 별에 빗댄 표현이 낯설면서도 이색적이었다. 정말로 별뿔별이 떨어지면 신기하게도 생을 마감하는 이들이 있었다.

학창시절 별자리에 대해 공부하면서는 별자리가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흥미롭게 다가왔다. 신화와 연계된 서사는 상상의 나래를 펴게 했다. 그렇듯 별은 막막한 현실을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는 영감과 상상의 매개체였다.



한 생각 등을 주제로 한 글을 써왔다.

물고기자리, 안드로메다자리, 카시오페아자리, 황소자리, 큰곰자리, 카페우스자리, 전갈자리, 켄타우루스자리, 물병자리, 기린자리, 비둘기자리 등 책에는 모두 89개의 별자리가 등장한다. 한번쯤 들어봤을 별자리부터 이름도 생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채롭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별자리가 성격이나 운명을 결정한다고 봤다. 오늘날 세계 유수의 일간지나 국내 신문들에 별자리 운세가 실리는 것은 그만큼 별자리가 내재하는 의미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대의 별자리 신화는 다양한 버전이 후대에까지 이어진다. 기록하고 전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변주될 수밖에 없었다. 책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을 수록해 독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저자 아네트 기제케에 따르면 고대 작가들 중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로부터 이후 로마의 문인 오비디우스는 별자리에 관한 주요 자료를 제공했다. 특히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는 한 권의 서사시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부터 신, 인간, 동물의 변신을 다뤘다.

그리스 신화는 신과 인간의 갈등과 사랑 등을 다룬 내용이 많다. 이번 책에는 대부분 그리스 신화가 실렸지만 어떤 것들은 로마 작가들이 수집해 새롭게 구성한 내용도 있다.

지구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오리온자리는 오른손에는 곤봉이 왼손에는 짐승 가죽을 들고 선 모습을 하고 있다. 밝기가 가장 밝은 3개 별은 허리띠를 이루고 하반신은 남방구의 일부에까지 뻗어 있다. 이맘때인 12월에서 1월 사이에 잘 관측된다고 한다.

오리온자리에는 다음과 같은 서사가 전해 내려온다. 자식이 없던 히리우스 왕이 제우스, 포세이돈, 헤르메스를 환대하고 오리온이라는 우랑이를 얻게 된다. 타고난 사냥실력을 갖춘 오리온은 여신 아르테미스와 어울렸다. 오리온은 대지의 모든 짐승을 잡을 수 있다고 평평거렸고 이에 동물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는 걱정이 앞섰다. 오리온의 허세에 격분한 대지의 신 가이아는 전갈을 보내 독침으로 오리온을 살해한다.

제우스는 인간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전갈을 별자리로 만들었다. 오리온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 있었던 아르테미스는 제우스에게 '오리온 별자리'도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렇듯 별자리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신화 이야기가 있다.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이고 안드로메다를 구한 서사는 페르세우스자리와 안드로메다



‘오리온자리’

자리, 제우스 사랑을 입어 곰으로 변신한 칼리스토는 큰곰자리로 밤하늘을 장식한다.

이야기도 이야기이지만 ‘눈으로 읽는 맛’도 빼놓을 수 없다. 이디스 해밀턴의 ‘그리스 로마 신화’



‘물병자리’

75돌 기념판 삽화를 그렸던 일러스트레이터 짐 티어너의 50여 점 작품은 독자들의 이해는 물론 상상력을 돕는다. <지와 사랑·2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

강원국 지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서툴다.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람과의 관계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까?” 100만 독자의 멘토 강원국 작가의 신작 ‘다시, 사람을 배웁니다’는 당연히 하지만 외면해 온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대통령 연설비서관, 대기업 직장인, 작가로 살아오며 수많은 관계의 한복판을 지나온 그는 정작 ‘관계 맺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씬 살 무렵 깨닫는다. 이 책은 그 깨달음 이후 관계를 다시 공부하며 걸어 올린 사유의 기록이다.

책은 ‘중심’, ‘경계’, ‘리더십’, ‘여유’, ‘결단력’, ‘회복’이라는 여섯 개의 키워드로 관계를 풀어간다. 관계의 기준을 자기 안에 세우는 것에서 출발해 가까워질수록 필요한 거리의 감각, 어른으로서의 영향력과 말의 책임, 관계를 오래 끌고 가는 여유, 잘 끊어내는 결단, 마지막으로 다시 회복하는 힘까지를 단계적으로 짚으며 관계를 잘 맺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태도를 차분히 전한다.

“상처받지 않는 관계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를 맺는 일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의 힘이라고 강조한다.

작가는 들어가는 글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하고픈 말을 건넨다.

“흐르는 강물처럼 살자. 막히지 않고,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나를 지키되 상대를 존중하고, 때때로 멀어질 줄도 알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잘 돌보는 단단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사람 공부’의 길이다.”

<웅진지식하우스·1만9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떠오르는 세계

라이몬트 솔츠 지음, 이신철 옮김

세계사는 오랫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서술돼 왔고, 고대사 역시 그리스와 로마의 이야기로 압축돼 전해져 왔다. 그러나 시선을 조금만 넓히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발트해에서 중국 해까지, 사하라에서 시베리아까지 이어진 길 위에서는 이미 훨씬 넓은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다. 유목민은 이동하며 교역망을 열었고, 도시와 제국은 흥망을 거듭하며 서로의 경계를 흔들었다.

지구사학자 라이몬트 솔츠의 ‘떠오르는 세계’는 고대를 고립된 문명사의 집합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가 맞물려 작동한 하나의 공간으로 다시 그려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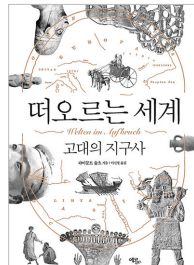
책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진시황, 그리스와 로마를 넘어 중국·인도·중앙아시아까지 시야를 넓힌다. 고대 유라시아를 가로지른 거대한 길을 따라 유목민과 도시, 제국과 상인이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추적하며 ‘왜 고대에 이런 결합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전쟁과 정복의 서사뿐 아니라 교역과 경제, 종교와 철학의 이동까지 함께 살펴며 고대를 이미 ‘세계화된 시대’로 읽어낸다.

저자는 고대를 하나의 연대기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유목민, 도시, 제국, 경제와 교역, 종교라는 다섯 가지 동력을 중심으로 사건과 지역을 교차시킨다. 카르하이 전투 같은 역사적 장면은 기마 유목민과 도시 국가, 제국 권력이 충돌하고 결합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단서로 제시된다. 실크로드 역시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시된다.

저자는 고대가 단절된 과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고대 유라시아에서 형성된 연결과 긴장은 이후 세계 질서의 밑그림이 되었고, 그 흔적은 오늘날의 세계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한다.

<에코리브르·3만8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K-민주주의의 다시 보기

김광민 지음

법정으로 몰려드는 정치, 정치로 확장되는 사법.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풍경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제도만으로는 현실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최선의 정치 체제’로 여겨온 민주주의의 균열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변호사이자 정치인인 김광민은 ‘K-민주주의의 다시 보기’를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민주주의의 기원과 작동 방식을 다시 묻는다.

책은 민주주의의 출발점부터 다시 묻는다. 흔히 민주주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다고 배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설명이 많은 가능성과 역사를 지워왔다고 말한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기원의 삭제’다.

‘오렌지’는 본래 인도에서 ‘나랑기’로 불렸지만 유럽으로 전해지며 이름과 기원을 잃었다. 이처럼 민주주의 역시 특정 지역의 역사로 고정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실험들이 주변으로 밀려났다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의 기원이 하나의 표준으로 굳어진 순간 다른 길들은 보이지 않게 된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을 이끈다.

책은 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제도로 미화하지 않는다. 대신 국가란 무엇인지,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짚는다. 대통령제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를 비교하며 제도의 장단점을 살핀다. 특히 한국의 대통령제가 어떤 정치적 타협 속에서 형성됐는지를 돌아보며 오늘의 정치 갈등이 우연이나 개인의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또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단번에 완성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과 권력자가 끊임없이 조정해야 하는 ‘진행형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현암사·2만2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